

'1천원의 사랑' 광주고교생들 올해도 나눔 실천

광주서석고 무지개공동회 봉사단, '매월 1천원' 모금 활동 시설 등에 586만원 기부...26년간 2억6천100여만원 후원

광주서석고 학생들이 올해도 '나눔 전통'을 실천해 연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30일 광주서석고에 따르면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교사들이 참여하는 무지개공동회 봉사단은 최근 본교 창의융합교실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세실리아요양원', '그루터기 다문화지원센터', '평강의 집', '영광 복음의 집', '엠마우스복지관, 성심사의 집,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 생촌종합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과 생필품은 무지개공동회 봉사단이 지난 3월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1천원 모금활동'을 전개해 마련했다. 전체 재학생 67명 중 580명(87%)이 참여해 매월 1천원과 휴지 등을 기부, 10개월간 총 586만8천원의 후원금과 휴지 700여롤이 모였다.

무지개공동회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연말 한 해동안 모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까지 무지개공동회가 26년간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한 후원금은 총 2억6천100여 만원에 달한다.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교사들이 참여한 무지개공동회 봉사단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1천원씩 모금활동을 전개해 586여만원과 휴지 700여롤을 마련, 최근 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광주서석고등학교 제공>

최장우 광주서석고 학생회장은 "1천원이 모여 10개월간 580여만원이 되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수백개가 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실천의

위대함을 느꼈다"며 "나눔의 전통이 후배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기 기자



국제로타리 3710지구, 무안공항 참사현장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지난 29일 무안공항 제 추항공 추락 참사와 관련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 구조작업 중인 소방관과 경찰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생수, 김밥, 커피라면, 직접 끓여낸 떡국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참사에 몰린 인원들로 인해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로타리 37

10지구 초야의 봉사단(단장 배경희)이 현장으로 달려가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다.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 군인,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단을 꾸렸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도농기원 "전남 특산물로 만든 유자음료 수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0일 "유자음료를 개발하고 지역 업체에 기술이전한 결과, 3종 총 30만 병(1억8천400만 원 상당)의 유자음료가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수출 유자음료는 전남지역 특산물인 유자, 녹차, 비파와 함께 해삼, 홍합, 굴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원료를 혼합해 개발됐다. 제품은 유자해삼드링크, 유자녹차홍합드링크, 유자비파굴드링크 등 3가지 맛으로 구성됐으며 중국 청도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유자음료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

작품인 유자, 녹차, 비파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음료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고품질 유자음료(유자해삼드링크), 보성 강산농원(유농업회사법인(유자녹차홍합드링크), 완도 다시마전복수산양어조합법인(유자비파굴드링크)이 생산했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지역 농식품 업체와 협력해 수출급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이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 전남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대상'

담양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산림행정 종합평가 및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산림행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육성 ▲도시숲 조성 ▲산불방지 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대응 등 3개 분야 17개 지표를 실했으며, 담양군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행정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봄철 산불 예방 대응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안전조치 강화로 인명 재산 피해 제로화에 이바지했으며, 도시숲 조성 면적 확대와 명

품 가로숲길 조성 등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조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는 120여만본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했고 주민, 단체와 함께 생활 속 숲을 조성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담양군과 지역민이 함께 숲을 가꾸고 조성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해남군, 민관 합동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해남군은 "최근 연말연시 교통사고 및 화재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37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해남군 안전교통과를 비롯해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읍내 백대방 사거리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과속·졸음운전 금지, 안전속도·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화재 예방 캠페인은 읍 5일시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사용, 콘센트 주변 청소,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알렸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서는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상가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홍보하며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 활성화는 군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구례 읍내파출소·구례읍자율방범대 야간 합동순찰

구례 읍내파출소는 "최근 구례읍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야간합동순찰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 순찰에는 흥영진 소장을 포함한 경찰관 7명, 구례읍자율방범대원 4명, 구례읍여성자율방범대원 4명이 참여해 구례읍 일원에서 연말연시 강·절도 등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교통사고 예방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조연호 구례읍 자율방범대장, 강경미 여성자율방범대장은 연말연시 기간 동안 4명씩 조를 편성해 구례읍 일원에서 방법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특히 청소년 선도활동,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흥영진 읍내파출소 소장은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치안을 통해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김양배 전 광주직할시장 별세



광주민주화운동 직후(1981년)와 1986-1988년 두 차례 광주시장을 지낸 김양배(사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28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향년 88세.

곡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행정고시(4회)에 합격했다. 내무부, 전북도, 전남도 근무를 거쳐 관선 진안군수와 순천시장, 관선 광주시장을 지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 민주정의당)으로 당선됐고, 같은 해 9월 민정당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1986년 11월1일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같은 해 10월 광주시장에 부임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사임했다. 1988년 5월까지 초대 광주직할시장을 역임했다. 광주시장 재직 중 재야단체와의 유대를 통해 민심을 수습했다는 평을 받았다.

문민정부 때인 1998년 청와대 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고 이후 농림수산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김영희 여사와 딸 김수진·김수연씨, 사위 이태규(의정부성모병원 부원장)·박경운(미래에셋 본부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일 오전 5시30분. 02-2258-5961. /연합뉴스



광주전남법무사회,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가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2천13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층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 김홍배·임재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윤하 광주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광주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은 "물가 상승과 환과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 1988년부터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현재까지 총 4억2천600여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주성학 기자



나주 송백그랜드팜, 취약계층 후원금 기탁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에 위치한 송백그랜드팜은 "최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탁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시면 내 취약계층과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과 부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김송백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희 다시면장은 "송백그랜드팜의 따뜻한 나눔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며 "후원금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백그랜드팜은 이번 기부 외에도 나주시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나주=정춘환 기자